생명 지키는 '환경 보살'이 되어주세요"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환경 명상절 108배 챌린지
의식 전환을 통한 생활변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울산불교환경연대 천도 스님이 10월 30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명상절 108배' 절 명상을 시작했다.

"지구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절합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과 자연을 생각하며 절합니다."

울산 녹색사찰 백련사 주지 천도 스님의 '환경명상절 108배' 문구들이다.

천도 스님이 10월 30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 명상을 시작했다. 스님은 '환경명상절 108배'를 '도전', 챌린지라고 했다. 지구를 지키겠다는 스님의 도전이자 지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천도 스님은 '환경 명상절 108배'를 기획한 이유에 대해 '의식 전환'을 꼽았다.

스님은 "불교 수행의 일환인 절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전환시키고 생활 속에 습관을 바로 잡아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는 인간들의 과도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한 과잉소비, 크고 더 많은 것, 더 빠른 것들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절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하며 시기했던 고달픈 마음도 내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환경명상절 108배는 유튜브 채널 '오 마이 붓다'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스님이 안내하는 절 명상 문구에 따라 절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실천할 내용을 마음에 담아 생활하면 된다. 챌린지 동참은 환경을 위한 구호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를 외치고 절 세 번을 영상으로 녹화해 링크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에는 예고편과 절 명상 문구가 담긴 전체 풀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다. 앞으로 스님은 유튜브 뿐 아니라 페이스 북을 비롯해 모든 SNS에 업로드 하고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천도 스님은 "단 1분! 하루에 1분만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자"며 "절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심정으로 지구 환경을 위한 마음을 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불교환경연대는 11월 7일 오전 10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에 위치한 국유림지에서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생태방생법회'를 개최한다.

불교문화 축제 팔공산 '승시' 온택트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제11회 승시 축제 개최

대구시는 제11회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온라인 축제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했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성황리에 개최됐던 '승시' 축제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승시는 스님들이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는 단순한 시장의 의미를 넘어 각 사찰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문화유산이다. 대구 팔공산에서 지난 2010년부터 개최되는 승시 축제는 올해 제11회째로 사찰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축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 기존 현장 체험 방식의 축제에서 온라인 참여방식의 축제로 방향을 전환해 개최했다.

따라서 지난해 진행했던 '승가씨름대회' '사찰음식체험' 등 직접 접촉하는 행사는 없애고 '온라인 승시 골든벨' '유튜브 승시 특별강좌' '스님과 함께하는 랜선 사찰음식 만들기' 등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추가했다.

행사는 10월 30일 영산재와 개막법요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이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했다. 31일에는 사경대회, 신명나는 국악한마당 행사가 열렸으며, 11월 1일에는 승시음악회, 법고대전 행사가 개최됐다.

각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표는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으며, 축제를 관람하고 싶은 시민은 유튜브 채널 '동화사' 'BBS불교방송'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교방송을 통해 녹화된 축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현장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승시축제를 발전시키는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탑사 · 쌍봉사 제9회 어르신 생신 잔치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봉사활동 <사진>을 개최했다.

10월 23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용진)가 주최하고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단장 윤복길)과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 진안동부새마을 금고(이사장 조용국)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생일잔치에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나해수 진안부군수, 조용국 동부새마을 금고 이사장, 진안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참석해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했다.

진안 어르신 생일잔치는 점차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농산촌 고령화 문제와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이산 탑사, 쌍봉사, 태고종 나누우리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진안 동부새마을 금고, 진안자원봉사센터가 마련했다.

행사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출연진과 어르신 3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장구공연팀의 신명나는 장구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가수 서윤등의 노래와 민요 공연이 열렸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부모님은혜'와 '고맙소'를 불러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쌍봉사 만복의소리합창단도 노래로 어르신들의 흥을 더하며 생신을 축하했다.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기에 자랑스럽고 이런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다"며 "어르신들이 건강 잘 유지하셔서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가르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어르신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불교聯, 비대면 '2020팔관회' 성료

2500여 재가불자 온라인으로 동참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맑고 깨끗해집니다."

부산불교계가 부처님의 계를 지켜 인간성을 회복하고 맑은 사회를 이루는데 호국의 초석(礎石)이 있음을 강조했다. 팔관회에는 50여명의 대중들이 참석했지만 보이지 않는 수호신중처럼 2500여 재가불자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규칙을 준수하는 비대면 행사였지만 참여도와 방역 규칙 준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는 평가다.

(사)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은 10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특설무대에서 '코로나19 극복 기원 2020 팔관회' <사진>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우선 영산회상의 거룩함을 찬탄하고 호국영령의 천도를 기원하는 호국영령위령재로 시작을 알렸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은 범패 의식을 진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어 코로나 조기 종식과 국태민안, 부산발전을 기원하는 호국기원법회가 진행됐다.

호국기원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호국기원문 낭독 및 기도 △팔관회 봉행개요 안내 △봉행사 △대회사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빛고을나눔나무, 2020미얀마 정수시설 후원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동현, 상임이사 보응)는 10월 27일 광주 수자타 야외무대에서 '2020년 미얀마 불교사원학교 대형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후원행사' <사진>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보응스님, 태고종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신도회장,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동구청장과 불교신행단체 대표 등 50여명 사부대중이 참여해 진행됐다.

동현 스님은 "우리가 지원하는 대형정화시설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는 토대다. 전체 물은 아니지만 최소한 먹는 물이라도 정화되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을 주는 것은 인류애의 출발이자,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작은 보시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외 50인으로 한정한 행사는 식사제공 없이 1년간의 사업을 영상과 이야기 손님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정신 스님 선서화 특별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승려노후수행기금과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성웅당 정신 스님 선서화 특별전<사진>을 개최한다. 10월 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선운사 만세루에서 열리는 이번 선서화 특별전은 대형 달마도와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성도 병풍, 복하도, 사군자, 매화도를 비롯해 그동안 정신스님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정신 스님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붓을 잡는 순간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1973년 출가이후 50여년간 그림을 그려왔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에 선보이는 작품 중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달마도 입상과 복하도 병풍으로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회군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4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붓다는 맨발로 세상을 유행하며 대자유의 삶을 몸소 실천해 증명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화엄·유식·법화·정토·밀교·선, 여러 이름으로 집약되어 전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본에 대한 의문을 참구하다 자성발로한 대행선사는 생활을 떠나 따로 불법을 구하지 말라 하였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라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활과 불법이 둘 아닌 도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붓다가 가리킨 대자유의 길을 여섯 갈래로 고찰하는 대행선연구원의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사상과 대행선사상

■일시 : 2020. 11. 21(토) 10:00 - 17:10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1부 / 개회식(10:00 ~ 10:30)
· 개회식

2부 / 오전 학술발표(10:40 ~ 12:00)
좌장 : 차차석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
· 발표: 이병욱교수(고려대)
· 논제: 『법화경』에서 바라본 대행 선사상
· 논평: 이기운교수(동국대)
· 발표: 조준호교수(동방문화대학원대)
· 논제: 정토사상의 본질과 대행스님의 정토관
· 논평: 문을식교수(동국대)

2020년 11월 21일(토)
(10:00 ~ 17:10)
You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3부 / 오후 학술발표(13:00 ~ 15:50)
좌장 : 안성두교수(서울대)
· 발표: 안환기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 논제: 유식사상과 대행선
–'자성신'과 '한마음'을 중심으로–
· 논평: 김성철교수(금강대)
· 발표: 정성준교수(위덕대)
· 논제: 대행선과 총지선의 성립배경 고찰
–『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
· 논평: 김영덕교수(위덕대)
좌장 : 최유진교수(경남대)
· 발표: 김방룡교수(충남대)
· 논제: 조사선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행의 선사상
· 논평: 혜원스님(동국대)
· 발표: 권탄준교수(대행선연구원 원장)
· 논제: 화엄사상과 대행선사상
· 논평: 박보람교수(충북대)

토론광장(16:00 ~ 17:00)
좌장 : 김용표교수
· 폐회식(17:00 ~ 17:10)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Tel : 031)470-3276, 3277 E-mail : ds7788@hanmaum.org